우물 속에 달이 있다고?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④ 이미지와 실재 : '우물 속의 달'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우물 속 달 진짜로 착각한 원숭이 이야기
〈욕심 많은 개〉· '튤립 마니아' 사건 같아
플라톤, 동굴 비유로 '진짜 달' 이데아 강조
부처님, 드러난 허상 아닌 진실 보라 주문
마음의 여유 갖고 이미지에 빠지지 않길

언제부턴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숲속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로망을 갖게 됐다. 아무래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영향을 받은 것 같다. TV 속에 비친 자연인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연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록 그들처럼 살지는 못해도 전원생활의 낭만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낸 적이 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시골 주택으로 이사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브라운관에 비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단열 상태가 좋지 않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것은 기본이었다. 이름 모를 수많은 벌레 때문에 한여름에도 저녁에는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 물론 봄과 가을 몇 달은 지내기 좋았다. 결국 1년 정도 살다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몸을 옮겼다. 전원생활과 편리성을 모두 충족하기에 시골 아파트가 괜찮은 대안이라 여긴 것이다.

이처럼 각종 매스컴에 보이는 모습과 현실 사이에는 작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화면 속의 이미지와 마감까지 몇 초 남지 않았다는 말에 혹해서 물건을 샀다가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미지와 실재가 항상 똑같으면 좋겠지만,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미지가 중시되고 있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가상 세계와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미지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불교 동화를 찾아보았다. 우물 속에 비친 달을 보고 진짜라고 착각한 원숭이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불교 동화는 〈자타카〉뿐만 아니라 〈백유경(百喩經)〉이나 〈잡보장경(雜寶藏經)〉 등 여러 경전에도 등장한다. 이번 원숭이 이야기는 중국 동진(東晉) 때의 승려인 법현(法顯)과 북인도 출신의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함께 번역한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 나온다. 출가 수행자의 계율, 즉 생활 규범이 담긴 책이다. 승가의 규범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전생담이나 여러 우화가 등장하는데, 원숭이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다.

불교계의 이단아로 악명 높은 데바닷타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승가의 화합을 해치고 있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러한 행동은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주 오랜 옛날 가시(伽尸)라는 나라에 파라나(波羅奈)라는 이름의 성이 있었는데, 그곳 숲속에는 500마리의 원숭이 무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원숭이들은 숲속을 돌아다니다 니구율(尼俱律, 무화과나무의 일종) 나무에 이르게 되었다. 그 나무 아래에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고, 마침 밝은 달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그때 원숭이 우두머리가 우물 속에 비친 달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달이 오늘 죽어서 우물 속에 떨어졌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 저 달을 꺼내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둠 속에 갇힐 테니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원숭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물에서 달을 꺼낼 수 있을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때 우두머리가 좋은 방법이 있다며 말했다.

"내가 먼저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있을 테니, 너희는 내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차례대로 서로의 꼬리를 잡고 길게 늘어뜨려 우물로 내려가면 달을 꺼낼 수 있을 거야."

원숭이들은 대장의 말에 따라 서로 꼬리를 맞잡고 우물 속으로 길게 늘어섰다. 하지만 물에 닿기도 전에, 원숭이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말았다. 결국 꼬리를 잡고 매달린 원숭이들은 한꺼번에 우물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때 수신(樹神)이 나타나 이처럼 어리석은 숲속의 축생들이 스스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하겠느냐는 내용의 게송을 읊었다.

부처님은 그때의 원숭이 우두머리가 바로 지금의 데바닷타이며, 나머지 원숭이들은 그를 따르는 비구라고 하였다. 그때 고통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다.

이미지인가, 실재인가?

이 이야기는 원후취월(猿猴取月), 혹은 수중착월(水中捉月)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글자 그대로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했다는 뜻이다. 이 동화를 읽으면서 문득 이솝우화 가운데 〈욕심 많은 개〉가 떠올랐다. 오늘 소개한 원숭이와 물속에 비친 이미지를 보고 멍멍 짖다가 입안의 고기를 놓친 개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원숭이와 욕심 많은 개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둘 다 현실 속 달과 고기가 아니라, 우물과 냇물에 비친 이미지에 먹혀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백(李白)은 술에 취해 물속에 잠긴 달을 건지려다 빠져 죽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우물 속의 달 이야기가 우리의 실제 삶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립 마니아(Tulip Mania)'라 불리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전 세계 무역을 통해 많은 돈을 번 네덜란드 귀족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터키의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꽃, 튤립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이 꽃이 인기를 끌자, 한 송이에 집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치솟게 된다. 꽃의 실제 가치가 아니라 이미지와 환상이 만들어낸 물거품이었다. 이러한 거품이 꺼진 것은 우습게도 '이것은 그냥 꽃일 뿐'이라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허상에서 빠져나오니 비로소 현실이 보인 것이다.

'튤립 마니아'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최초의 자산 거품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건이다.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닷컴 버블 사건 또한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우물 속 이미지에 먹혀 다른 원숭이의 꼬리를 잡고 달려든 것처럼, 닷컴이 들어가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인간 사슬을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오늘에도 여전히 각종 주식 방송이나 리딩방의 유혹에 빠져 달을 건지려는 이들이 있다. 원후취월의 메커니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철학자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있다. 동굴 안에 갇힌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자신의 눈에 비친 모습이 실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사물을 보면, 자신이 본 그림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이 비유를 통해 플라톤은 감각적인 동굴 속 그림자, 물속의 달로 비유되는 현상세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성을 통해 '이데아(Idea)'라고 불리는 진짜 하늘의 달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강경〉에는 "만약 모양으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여래를 볼 수 없다(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는 구절이 나온다. 형색[色]이나 음성 모두 허상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참다운 여래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를 보려거든 진리를 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불교의 정도(正道), 즉 바른길이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염불이나 명상 등을 수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바칼리라는 비구가 병들었을 때 문병을 간 적이 있다. 그가 부처님께 예경(禮敬)을 드리는 것이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자, 부처님은 정색하면서 썩어 문드러질 육신을 봐서 무엇하냐며 크게 질책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여래를 보려면 진리를 보라는 말씀을 남긴다. 겉으로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라는 것이다. 〈어린 왕자〉에서도 중요한 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적지 않은 불자들이 영험하다는 절이나 불상을 찾아 복을 비는 등 바칼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혹여 형색이라는 이미지에 먹혀 정작 중요한 부처님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이처럼 이미지에 의해 각색된 세계에 빠지면, 실제의 현실이 안 보이거나 왜곡할 수 있다. 이제 우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일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쉽고 간단할 수도 있다. 우물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하늘로 돌리면 되는 일이다. 우리가 평소 밤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기로 하자. 거기에 진짜 달이 있다.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달을 우물 안에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